

베드로전서 1 : 8 ~ 16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삶”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증거 중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말은 모든 인류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부활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니까 제자들이 근심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땅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부패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 잘 안 찾을 때가 많아요. 어렵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주님 찾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인 불순물 같은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오늘도 우리 찬송 가운데 너무 은혜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유는 최고 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본문)8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봤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표적과 기사도 봤어요.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느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봤습니다. 승천도 보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봤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성전 미문으로 가다가 40년 동안 앉아 있던 그 걸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걷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여 살아계신다는 걸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또 옴바에서 고넬료의 부름을 받고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을 여는 것도 봤어요. 이걸 다 경험한 베드로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넌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도다.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도마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되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시는 아버지이시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예수 믿는 거. 당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2천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은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역사로 믿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야 할지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지만 그를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고 세상의 죄악을 끊고, 또 불이익 되지만 말씀을 지켜 나가기도 하고 왜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특징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더 기쁨이 큰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지금 별로 안 기쁘고 자꾸 사라지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종직자일수록 우리가 더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이 있고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쁨,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재미가 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시니라.** 첫째,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미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복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후손이 복 받고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모세가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나와 같은 선생이 올 것입니다. 이사야가 고난의 주를 예언했습니다. 다윗이 부활의 주를 예언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7장에 보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 고난 받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이 증거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12절에 **그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고 다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본문12절)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우리도 지금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도들 이후에 복음 전도자를 통해 2천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이 시

대에도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받은 줄 믿습니다. (본문13절 하단)**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유대인들은요 옷이 치렁치렁한 거에 옷을 입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허리를 딱 동해요. 그와 같이 마음을 딱 동해라 붙들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편한 시대에 사니까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자꾸 허물해지잖아요. 마음을 딱 단단히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마음을 동이고 마음을 동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여 정신 차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요. 너무 힘든 일을 당하고 막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전도하는 게 힘들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게 힘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천국만 가면 됐다. 이러면 이제 퍼지는 거라. 너무 풀어지지 마세요. 오뉴월에 해삼 풀어지듯이 확 풀어져가지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왜 그래요? 이 땅에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가치가 있는 일이다. 정말 중요하다. 정말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끝까지 온전히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본문 14절)**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듯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처럼 살아가. 옛날에는 믿지 않을 때 불순종의 아들이죠. 그때는 어떻게 살아요? 요한일서 16절, 17절 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재미있는 거 없나? 예쁜 사람 없나? 육신이 자꾸 정욕을 찾는 거야. 안목의 정욕 좋은 거 없나? 어디가 좋더냐. 또 이생의 자랑. 옷, 가방, 자식 자랑 내 자랑 좋은 음식점에 가던 내가 누구 만났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옆에서 사진 찍었다. 뭐할건데? 국회의원 옆에서 사진 찍었다. 그럼 뭐 할 건데?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알겠지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권력과 명예와 돈을 벌기 위해서 죄와 더불어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돈을 못 벌어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명예가 없어도 국회의원 떨어져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15~16절)**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 볼 때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기준이 돼야 돼요. 세상이 우리 기준이 되면 살다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돈 쫓아 가면 넘어지고, 명예 쫓아 가면 넘어지고, 권력 쫓아가고 인기 쫓아 가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쫓아가지 말고 거룩을 쫓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안 알아줘도 옥해도 별로 그게 우리를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죠. 이걸 보고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안 받고 내 힘으로 자꾸 거룩하게 살려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힘이 없는데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셀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전도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깨어 있어야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아~! 세상 것보다 하나님께 더 소중하구나!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말이 바뀌어요. 말도 막 저주하고 가만히 있나 보자. 내가 가마떼기인 줄 아느냐? 내가 막 이랬다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해 주옵소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행동도 바뀌잖아요. 누가 그랬다고? 스테반 같은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것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

온누리교회 055)386-0091